

전통주택 사랑대청의 우물마루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umul-maru Components of Sarang-taechong in traditional Houses

오혜경* / Oh, Hye-Kyung

홍이경** / Hong, Yi-Ky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 Wumul-maru components of Sarang-taechong with themselves in traditional houses. Physical trace method was used for this study. The samples were taken from the Sarang-taechong of 6 traditional Korean houses, Yunkyungdang, the ancient Chusa estate, Sunkyojang, Chunghyodang, Yangjiindang, Unjoru. The major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Regarding to the changguit'ul(long board);

the number was from 0(minimum)to 3(maximum), the size was $244.3 \times 4407.1\text{mm}$ on average, and the proportion was 1:18.9.

2) Regarding to the tongguit'ul(center board);

the number was from 5(minimum)to 18(maximum), the size was $188.7 \times 2374\text{mm}$ on average, and the proportion was 1:12.9.

3) Regarding to the marunol;

the number was from 42(minimum)to 155(maximum), the size was $247 \times 574\text{mm}$ on average, and the proportion was 1:2.29.

키워드 : 전통주택, 사랑대청, 우물마루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전통주택 계승에 관한 문제는 60년대 이후 시작되어 70년대와 80년대를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서구화를 끝 현대화로 여겼던 막연한 지향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정서에 적합한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그러나 전통주택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건축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로서 주로 주택의 공간구성이나 구조상 특성 등을 다룬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실내공간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미약하였다. 더욱이 현재 우리의 주변에 전통실내공간의 구성요소들을 계승한 사례가 많고 이러한 요소들이 실내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보면 전통주택 실내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전통주택의 실내구성요소중 바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온돌이나 마루의 구조적 측면이나, 발달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바닥을 이루고 있는 각 요소들의 구성방법과 특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고, 바닥의 실측에 있어서도 평면도에 나타난 바닥의 전체 크기에 대한 것이 대부분으로 각 구성요소들의 규모나, 형태 즉 휘어지거나 하나의 부재에도 위아래의 굽기가 다른 상태 등 정확한 실측에 근거하여 이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주택들을 대상으로 실내구성요소인 바닥중에서 우물마루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특성과 이들이 실내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전통문화의 유산을 보존, 기록함과 동시에 실내디자이너에게 우물마루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특성과 공간의 이미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상류주택 사랑대청의 우물마루를 구

* 정회원,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부교수

** 정회원,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박사과정

성하는 요소들을 규모와 비례, 형태로 나누어 이를 분석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연구대상주택 우물마루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 둘째, 연구대상주택 장귀틀의 규모와 비례, 형태는 어떠한가?
- 셋째, 연구대상주택 동귀틀의 규모와 비례, 형태는 어떠한가?
- 넷째, 연구대상주택 마루널의 규모와 비례, 형태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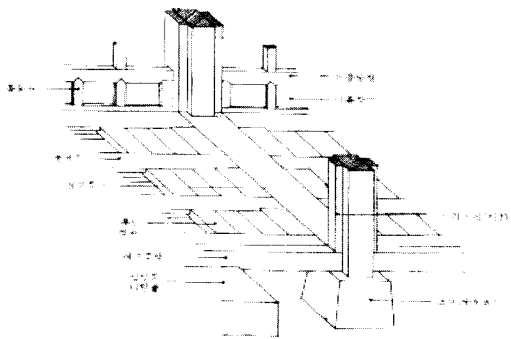
2. 연구의 방법

2.1. 연구의 대상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대표적 주거건축으로서 조선시대¹⁾에 건축되어 현존하는 상류주택중 역사적 보존의 가치가 높고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여섯주택의 사랑대청을 선정하였다. 이들 주택은 서울의 창덕궁내 연경당, 충청도 예산의 추사고택, 강원도 강릉의 선교장, 경상도 안동의 충효당과 양진당, 전라도 구례의 운조루로서 특히 경상도 지역²⁾에서는 현존하는 상류주택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을 뿐 아니라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안동에서 두 주택을 선정하였다. 또한 각 주택의 사랑대청을 선정한 이유는 대상주택의 안대청에 대부분 거주자들이 살고 있어 개조된 부분이 많았고, 이외에도 우물마루의 구조를 한 행랑채나 별당채가 대상주택에 없는 경우가 있어 사랑대청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사례조사연구로서 현존하는 조선시대 상류주택을 현장답사하여 사랑대청의 바닥을 구성하는 요소들(장귀틀, 동귀틀, 마루널)을 실측, 도면화하여 이를 분석하는 것이다<그림 1>.



<그림 1> 우물마루의 구조

현장답사는 1차답사(1998년 7월 24일~1998년 7월 30일)와 2차답사

(1999년 1월 17일~1999년 1월 22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1차 답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2차 답사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요소들의 특성을 규모와 비례, 형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각 요소들의 규모는 개수와 크기로서 파악하였다. 이때 각 요소들의 대부분은 직사각형의 형태이므로 짧은 부분은 가로로, 긴 부분은 세로로 실측하였다. 요소별 실측방법으로 장귀틀의 양 끝 가로부분의 길이가 식별하기에 차이가 있었던 선교장은 짧은 가로면 긴 가로면 양면 모두를 실측하였고, 식별이 가능하지 않았던 나머지 주택의 장귀틀은 가로, 세로 각각 한번만을 실측하였다. 동귀틀은 치수 실측시 몇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끝부분이 장귀틀이나 피중방과 접합되는 부분에 있어 길이가 좁아진 경우가 있었고(선교장, 추사고택, 양진당), 마루널과 접합되는 부분에서 길이가 좁아진 경우(충효당, 양진당)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귀틀의 좁아진 부분이 아닌 동귀틀 대부분을 차지하는 길이를 실측하였다. 이외의 동귀틀의 경우는 가로, 세로, 한번씩을 실측하였다. 마루널은 동귀틀과 동귀틀 사이에 있는 마루널을 한줄로 보고 줄 단위로 측정하였다. 즉 한줄에서 먼저 개수를 세고 다음 가장 넓은 마루널의 가로, 세로, 가장 좁은 마루널의 가로, 세로를 재었으며 나머지는 이에 준해서 그려넣었다. 또한 각 요소들의 비례는 각 요소들의 실측치에 대한 비례인 가로:세로의 비로 추출하였으며, 형태는 장귀틀, 동귀틀, 마루널의 각각의 형태와 이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생겨난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3. 연구의 제한점

우물마루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상류주택 사랑대청의 바닥 모두를 조사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섯주택 사랑대청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우물마루의 구성요소별 치수를 실측함에 있어서 약간의 실측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3. 연구의 결과

3.1. 연구대상 주택 사랑채의 일반적 특성

(1) 사랑대청을 중심으로한 평면구성

연구대상 주택 사랑채의 일반적 특성을 우물마루가 놓여져 있는 사랑대청을 중심으로 한 평면구성에서 살펴보면, 연경당은 사랑방과 누마루 사이에 사랑대청이 위치해 있고, 추사고택은 큰사랑방과 작은 사랑방 사이에 사랑대청이 위치해 있다. 선교장은 우측에 사랑방 2개가 인접해 있고 나머지 3면은 외부에 인접한 구성을 하고 있었다. 또한 충효당은 사랑방이 좌, 우측으로 인접해 있는 구성이었고, 양진당은 좌측에 사랑방이 위치하고 나머지 3면은 외부에 인접한 구성이었으며, 운조루는 사랑방과 누마루 사이에 사랑대청이 위치한 공간구성을 나타내고 있었다<그림 2>.

1)대상주택의 건립연대를 살펴보면, 17~19C 에 걸친 조선시대 중기~후기의 주택으로 충효당, 양진당이 1600년대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됨으로서 가장 먼저 건립되었고, 연경당이 가장 늦은 1828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2)현존하는 상류주택은 주남철(1997)의 『한국주택건축』을 참고하였는데, 경상도에서 9주택, 서울에서 8개, 강원도에서 6개, 충청도에서 4개, 전라도에서 2개로서 경상도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경당		추사고택	
선교장		충효당	
양진당		운조루	

<그림 2> 사랑대청을 중심으로 한 평면구성

(2) 사랑대청 우물마루 전체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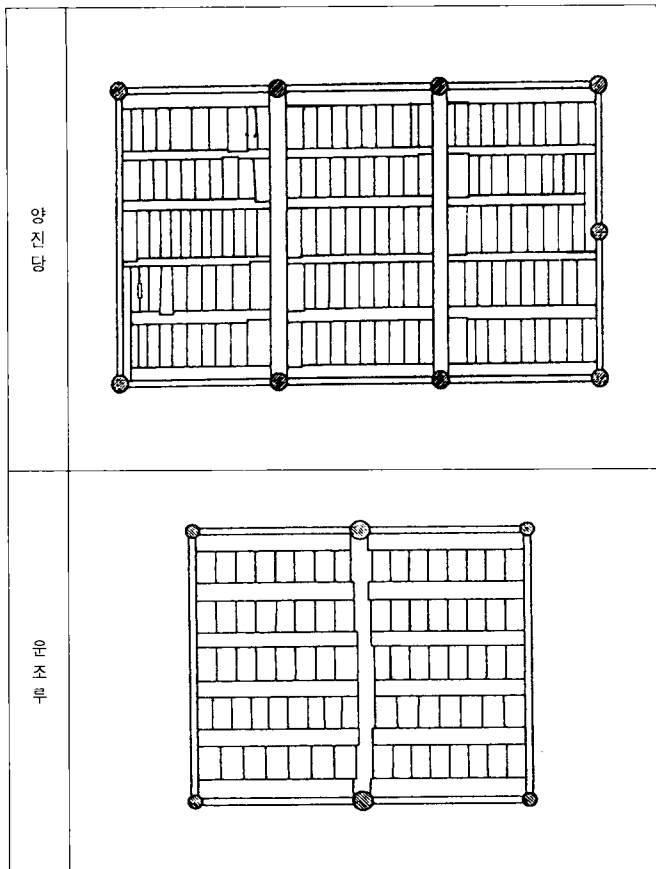
연구대상 주택 우물마루 전체의 규모를 보면, 추사고택이 1間, 2660×3000mm(7.98㎡, 2.42평)으로 가장 작았고, 연경당이 2間, 4870×3475mm(16.92㎡, 5.13평), 운조루가 2間 3900×4900mm(19.11㎡, 5.79평), 충효당이 4間, 4680×5000mm(23.40㎡, 7.09평), 선교장이 4間, 5130×5010mm(25.70㎡, 7.79평), 그리고 양진당이 6間 7840×4700mm(36.85㎡, 11.17평)으로 가장 컸다. 따라서 이들 사랑대청 실의 규모는 최소 7.98㎡~최대36.85㎡(2.42평~11.17평), 평균 21.66㎡(6.56평)으로 이로서 조선시대 상류주택 사랑대청 규모의 범주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각 주택의 1間에 따른 크기를 비교해 보면, 충효당이 5.85㎡(1.78평)으로 가장 작았고, 양진당 6.14㎡(1.86평), 선교장 6.43㎡(1.95평), 추사고택 7.98㎡(2.42평), 연경당 8.46㎡(2.56평), 그리고 운조루가 9.56㎡(2.9평)으로 다른 주택의 1間 크기에 비해 큰 면적을 나타내었다. 이는 운조루가 위치한 지역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당시, 규모에 대한 규제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그 허용정도가 용이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주택에서는 1間을 이루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고, 이들간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間이라는 규격화된 특성과 함께 주택별 융통성을 동시에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추사고택	
연경당	
선교장	
충효당	

<그림 3> 연구대상 주택의 우물마루

scale:1/100



3.2. 우물마루 구성요소의 특성

(1) 장귀틀

장귀틀³⁾의 규모를 개수와 크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귀틀의 수는 추사고택 0개, 운조루 1개, 양진당 2개, 연경당 3개, 선교장 3개, 충효당 3개였다. 장귀틀이 우물마루에 존재하는 양상을 살펴보면, 우선 2칸이상의 주택에서 가운데 전면기둥에서 후면기둥까지 통채로 이루어진 장귀틀이 반드시 존재하였고, 그 외 대청과 인접한 방 옆이나 측면 하인방 옆 즉 가장자리에 대해서는 장귀틀은 주택별로 차이가 있었다. 즉 운조루, 양진당의 경우 가장자리에는 장귀틀이 존재하지 않았고 간수에 따라 간 가운데에만 장귀틀이 1개~2개 존재하였다. 그러나 연경당의 경우는 통채로 된 장귀틀이 가장자리에 도 각각 1개씩 추가되어 총 3개의 장귀틀이 존재하였고, 선교장, 충효당의 경우도 가장자리에 장귀틀이 1개씩 추가되어 연경당과 마찬가지로 3개의 장귀틀이 존재하였다. 다만 선교장은 가장자리의 장귀틀 구성에 있어 기둥에 물린 동귀틀에 의해 이들 장귀틀이 나뉘어져서 나타났고 충효당은 가운데 기둥까지만 물린 반 장귀틀이 나타났다. 따라서 장귀틀은 간 가운데 통채로 된 장귀틀만으로 된 경우(양진당, 운조루), 가장자리에 통채로 된 장귀틀이 추가된 경우(연경

당), 가장자리 양 측면에 동귀틀에 의해 나뉘어져 있거나(선교장), 가장자리의 중간기둥까지만 반 장귀틀이 있는 경우(충효당)로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장귀틀은 2칸 이상의 경우 가운데 장귀틀이 반드시 존재했고, 가장자리에 있는 장귀틀은 주택별로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장귀틀의 크기를 주택별로 살펴보면, 중간 장귀틀의 경우 연경당 200×3375mm, 선교장은 장귀틀의 가로길이가 달라 짧은 쪽은 190×4980mm, 긴 쪽은 230×4980mm였다. 한편 충효당 330×4505mm, 운조루 240×3880mm, 양진당 245×4565mm, 275×4565mm로, 가로길이(기둥과 접하는 길이)는 최소 190mm~최대 330mm, 평균 250mm였다. 세로길이(대들보 방향의 긴 축의 길이)는 최소 3375mm~최대 4980mm, 평균 4407.1mm였다. 여기에서 세로의 길이는 기둥과 기둥사이를 1개의 목재로 연결해야 하므로 목재의 길이가 한정되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가로의 길이는 주택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장자리 장귀틀의 경우 연경당 180×3375mm, 190×3375mm, 선교장 170×4980mm, 170×4980mm, 충효당 180×2555mm, 240×1795mm로 가로길이는 최소 170mm~최대 240mm, 평균 188.3mm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운데 장귀틀이 8치⁴⁾~12치 정도(242mm~364mm), 가장자리의 장귀틀이 6치 정도(182mm)라는 사실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였다.

그 세부적인 비례를 살펴보면, 가운데 장귀틀의 경우 가로:세로의 비가 연경당은 1:16.9, 선교장은 가로길이가 짧은 쪽이 1:26.2, 긴 쪽이 1:21.7, 평균은 1:23.6이었다. 충효당은 1:13.7, 양진당은 1:18.6, 운조루는 1:16.2로 평균 1:18.9의 비례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서 충효당의 장귀틀의 비례가 가장 굵었고, 선교장이 가장 가는 비례를 나타내었다.

또한 장귀틀의 형태를 살펴보면, 우선 가운데 장귀틀의 경우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부분의 주택에서 장귀틀은 기둥과 기둥사이를 건너지르는 잘 다듬어진 직사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었으나 운조루의 경우, 장귀틀이 동귀틀과 결합되면서 결합된 부분이 파여서 들어가는 불규칙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는 운조루의 장귀틀에 휘어진 부재를 사용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선교장의 경우 가로길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230-190=40mm), 이 역시 사용된 부재가 아래부분은 굵고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목재의 형태였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가운데 장귀틀이 2개 사용된 양진당의 경우 가로길이에 차이가 남으로서(275-245=30mm) 같은 굵기의 목재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가장자리 장귀틀의 경우 연경당은 가운데 장귀틀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형태상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선교장의 경우는 4칸 대청의 구조상 동귀틀이 기둥과 접해 가로지르면서 장귀틀이 이어져서 나타나는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충효당의 경우는 가장자리에 대해서는 장귀틀이 중간기둥까지만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길이 또한 달랐다.

3) 장귀틀은 전면기둥에서 후면기둥까지 통채로 건너지르고 이어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만 방옆이나 측면 또는 전후벽면 하인방 옆에 대해서는 장귀틀은 기둥에 물린 동귀틀과 직교하면서 이어지게 할 수 있다.(장기인, 목조, 보성문화사, p.330)

4) 1치: 약 3.03cm이다.

5) 장기인, 목조, 보성문화사, 1991, p.330

한편, 연구대상 주택에 사용된 기둥을 보면, 연경당, 선교장, 추사고택에는 모진기둥⁶⁾이 사용되었고, 충효당, 양진당, 운조루에서는 두리기둥⁷⁾이 사용되었다. 이는 서울지역에 가까운 주택들일수록 모진기둥이 쓰이고 지방의 주택들일수록 두리기둥이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운데 장귀틀이 기둥과 접합되어 나타난 결과를 기둥의 종류에 따라 살펴보면, 모진기둥이 사용되었던 연경당은 기둥 안쪽으로 장귀틀이 위치하고 있었고, 선교장의 경우 짧은 가로길이는 기둥 안쪽으로, 긴 가로길이는 기둥 바깥쪽에 위치하였다. 두리기둥이 사용되었던 충효당은 기둥의 바깥쪽에 장귀틀이 위치하였고, 양진당의 경우 기둥의 지름과 비슷한 길이로, 운조루는 기둥 안쪽으로 장귀틀이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서 기둥의 종류에 따라서는 모진기둥과 두리기둥 사이에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둥과 만나는 부분에 대한 처리수법을 보면, 충효당의 장귀틀이 두리기둥의 지름보다 넓은 관계로 장귀틀이 기둥을 반 정도 감싸는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2) 동귀틀

동귀틀의 경우, 그 수는 추사고택 5개, 충효당 11개, 연경당 12개, 운조루 12개, 선교장 12개, 양진당 18개였다. 이들을 실의 크기와 비교해 보면, 실의 크기가 1間일 경우 5개, 2間일 경우 12개, 4間일 경우 12개~14개, 6間일 경우 18개가 존재하였다. 크기면에서는 연경당의 경우 최소 90×2245mm, 최대 130×2245mm, 평균 119.3×2245mm였고 추사고택은 최소 215×2900mm, 최대 238×2900mm, 평균 220.6×2900mm, 선교장은 최소 115×2245mm, 최대 200×2370mm, 평균 161.4×2260mm, 충효당은 최소 125×2280mm, 최대 240×2310mm, 평균 196.7×2242.1mm, 양진당은 최소 145×2320mm, 최대 230×2470mm, 평균 183.3×2396.7mm, 운조루는 최소 225×2190mm, 최대 285×2210mm, 평균 250.8×2200mm였다. 즉 이들 동귀틀의 가로길이는 최소 90mm~최대 285mm, 세로길이는 최소 2190mm~최대 2900mm로 평균 188.7×2374mm였다.

동귀틀의 비례는 주택별 각 동귀틀의 가로, 세로길이의 평균을 구하여 산출하였다. 각각의 비례를 살펴보면, 연경당은 1:18.0, 추사고택은 1:13.4, 선교장은 1:12.4, 충효당은 1:10.1, 양진당은 1:14.6, 운조루는 1:9.0으로 평균 1:12.9의 비례를 가지고 있었다. 이 중 연경당, 추사고택, 선교장, 충효당, 운조루 5주택은 주택별로 존재하는 동귀틀간의 비례가 확연히 구분되지는 않았으나, 양진당의 경우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굵은 비례의 동귀틀과 가는 비례의 동귀틀이 섞여 있었다. 이의 분포된 양상을 보면, 장귀틀의 양 끝에 위치하고 있는 동

귀틀 6개의 굵기는 거의 같은 수치로 굵었고 다른 동귀틀은 각각 그 치수가 달라 다양한 굵기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장귀틀과 동귀틀간의 가로길이에 대한 비례를 살펴보면, 연경당, 선교장의 경우는 여성적이면서 섬세함을 느낄 수 있었고, 충효당, 운조루는 남성적이면서 힘이 있었으며, 양진당은 중간적인 비례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중에서 연경당 선교장은 장귀틀:동귀틀의 가로길이에 대한 비례가 1:0.7, 1:0.8로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지만 동귀틀간의 가로길이에겐 별 차이가 없었다. 또한 양진당을 보면 연경당과 같은 비례인 1:0.7이었다. 그러나 양진당은 위의 두 주택과는 다른 이미지를 나타내었는데 그 이유는 두 주택에서는 각 동귀틀간의 가로길이가 비슷했음에 비해 양진당은 동귀틀 가로길이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성적인 비례를 느낄 수 있었던 충효당은 장귀틀:동귀틀의 비가 1:0.6으로서 연경당, 선교장보다 차이가 있었고, 운조루는 1:1.05로서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동귀틀이 굵은 비례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서로 상이한 비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주택에서 남성적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충효당은 장귀틀의 치수(330mm)가 굵었고, 운조루는 동귀틀의 치수(250.8mm)가 굵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귀틀:동귀틀의 가로길이의 비례와 장귀틀, 동귀틀의 치수, 동귀틀간의 가로길이의 차이 등이 복합되어 공간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본 사례에 국한된 결과이므로 이를 일반화시키기에 는 무리가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동귀틀의 형태는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첫째, 가로, 세로에 패임이 없는 직선적인 형태(연경당, 선교장, 운조루), 둘째, 장귀틀이나 피중방의 접합부분에서 좁아지는 형태(추사고택, 양진당), 셋째, 동귀틀 중간부분이 패여져 있는 형태(충효당, 양진당)였다. 첫 번째 형태는 부재를 고를 때 이상이 없는 목재를 잘 다듬어서 사용한 경우로 추측되며, 두 번째 형태는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목재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세 번째 형태는 결가지가 나거나 목재의 몸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살려 부재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는 전통주택에 사용된 부재의 형태가 자연과의 융합성⁹⁾ 내지는 자연의 부재를 크게 다듬지 않고 사용한 결과¹⁰⁾라 보여진다.

(3) 마루널

마루널의 경우, 그 수는 추사고택 42개, 연경당 108개, 운조루 78개, 충효당 95개, 선교장 111개, 양진당 155개로 최소 42개~최대 155개, 평균은 98개였다. 크기면에서 보면, 추사고택 마루널은 최소 220×445mm, 최대 320×450mm, 연경당은 최소 255×422mm, 최대 280×484mm, 운조루는 최소 240×480mm, 최대 372×500mm, 충효당은 최소 172×625mm, 최대 317×740mm, 선교장은 최소 195×625mm, 최대 285×705mm, 양진당은 최소 132×645mm, 최대값은 310×775mm였다.

6) 모진기둥은 모기둥이라고도 하며, 방주(方柱), 각주(角柱). 둥근나무를 네모 지도록 다듬어 만든 기둥을 말한다. 보통 모서리에 모죽임을 하여 장식하였고, 조선시대에 살림집에서 흔하게 사용되었다(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p.283).

7) 두리기둥은 둥구리 기둥, 원주(圓柱)라고도 하며 기둥을 둥글게 다듬어 마련한 기둥이다(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p.283).

8)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93

9) 추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97, p.266

10) 박영순 외, 우리 옛 집 이야기, 열화당, 1998, p.194

즉 이들 마루널의 가로길이는 최소 110mm~최대 372mm, 세로길이는 최소 422mm~최대 775mm로 평균 247×574mm였다. 주택별로는 충효당(142×625mm)이 가장 작았고, 양진당(310×775mm)이 가장 컸다.

<표 1> 사랑대청 바닥의 규모 (단위: mm)

	실의 크기	구성요소			
		장귀틀	동귀틀		
연경당	4870×3475 16.92㎡ 5.13평	180×3375 190×3375 200×3375	90×2245	128×2245	㎡: 255×422 M: 280×484 총: 108개
			95×2245	120×2245	
			120×2245	120×2245	
			125×2245	130×2245	
			130×2245	128×2245	
추사고택	2660×3000 7.98㎡ 2.42평		238×2900	215×2900	㎡: 220×445 M: 320×450 총: 42개
			215×2900	215×2900	
			220×2900		
선교장	5130×5010 25.70㎡ 7.79평	90(230)×4980 170×4980 170×4980	180×2245	170×2245	㎡: 195×625 M: 285×705 총: 111개
			115×2245	195×2245	
			180×2250	190×2245	
			115×2250	200×2295	
			170×2250	190×2250	
			200×2370	195×2250	
충효당	4680×5000 23.40㎡ 7.09평	240×1795 180×2555 330×4505	125×2310	240×2210	㎡: 142×625 M: 317×740 총: 95개
			125×2280	195×2070	
			200×2280	180×2100	
			240×2280	200×2310	
			240×2100	240×2310	
			195×2100		
양진당	7840×4700 36.85㎡ 11.17평	245×4565 275×4565	230×2470	210×2470	㎡: 178×645 M: 310×775 총: 155개
			230×2400	145×2400	
			230×2320	165×2400	
			215×2470	135×2400	
			215×2400	210×2400	
			215×2320	145×2320	
			145×2470	165×2320	
			165×2470	135×2320	
			135×2470	210×2320	
운조루	3900×4900 19.11㎡ 5.79평	240×3880	285×2210	225×2210	㎡: 240×480 M: 372×500 총: 78개
			245×2210	260×2210	
			285×2190	250×2190	
			245×2190	240×2190	
			250×2210	225×2190	
			240×2210	260×2190	

㎡: 최소치 M: 최대치

마루널의 비례는 주택별 최소, 최대, 평균비례¹¹⁾로 판단하였는데, 연경당의 경우 최소 1:1.65, 최대 1:1.73, 평균 1:1.69, 추사고택은 최소 1:1.41, 최대 1:2.02, 평균 1:1.68, 선교장은 최소 1:2.47, 최대 1:3.21, 평균 1:2.84, 충효당은 최소 1:2.33, 최대 1:3.63, 평균 1:2.98, 양진당은 최소 1:2.5, 최대 1:4.89, 평균 1:3.24, 운조루는 최소 1:1.20, 최대 1:34, 평균 1.29로 이들 주택별 마루널의 평균 비례는 1:2.29이었다. 주택별로는 운조루(1:1.20)가 가장 적었고, 양진당(1:4.89)이 가장 큰 비례를 나타내었다.

또한 마루널의 형태는 세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었는데, 첫째 우물

마루 전체적으로 고른 마루널이 사용된 경우(연경당)와 둘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차이가 있지만 동귀틀 사이의 1줄 내에서는 비교적 같은 크기의 마루널이 사용된 경우(선교장, 운조루), 셋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동귀틀 사이의 1줄 내에서도 차이가 나는 마루널이 사용된 경우(추사고택, 충효당, 양진당)로 살펴 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우물마루 전체를 주택별로 비교해 보면, 연경당은 각 구성요소 모두 비교적 잘 다듬어진 부재를 사용하였고, 선교장은 장귀틀, 동귀틀은 비교적 잘 다듬어진 부재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마루널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크고 작은 직사각형의 형태들이 섞여서 배치되고 있었다. 충효당, 양진당은 장귀틀이 비교적 잘 다듬어졌으나 동귀틀과 마루널이 불규칙한 형태로 배치되고 있었고 운조루는 동귀틀과 마루널이 다듬어진 형태를 나타내었음에 비해, 장귀틀에 휘어진 부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통주택 사랑대청의 우물마루를 구성하는 요소인 장귀틀, 동귀틀, 마루널을 실측하여 이들의 규모와 비례, 형태적 특성을 찾아 보았으며 이들 특성들이 공간의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연구대상주택 우물마루 구성요소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장귀틀의 개수는 최소 0개~ 최대 3개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크기는 평균 244.3×4407.1mm로 1:18.9의 비례를 나타내었다. 또한 2칸 이상의 경우 가운데 장귀틀이 반드시 존재하였고, 가장자리에 있는 장귀틀은 주택별로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형태를 보면, 기둥과 기둥사이를 건너지르는 잘 다듬어진 직사각형 형태(연경당, 선교장, 충효당, 양진당)와 동귀틀과 결합되면서 결합된 부분이 파여서 들어가는 형태(운조루)로 살펴볼 수 있었다.

② 동귀틀의 개수는 최소 5개~ 최대 18개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크기는 평균 188.7×2374mm로 1:12.9의 비례를 나타내었다. 또한 형태는 가로세로에 패임이 없는 직선적인 형태(연경당, 선교장, 운조루), 장귀틀이나 피중방의 접합부에서 좁아지는 형태(추사고택, 양진당), 동귀틀 중간부분이 패여져 있는 형태(충효당, 양진당)로 살펴볼 수 있었다.

③ 마루널의 개수는 최소 42개~ 최대 155개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크기는 평균 247×574mm로 1:2.32의 비례를 나타내었다. 또한 형태는 우물마루 전체적으로 고른 마루널이 사용된 경우(연경당)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차이가 있지만 동귀틀 사이의 1줄 내에서는 비교적 같은 크기의 마루널이 사용된 경우(선교장, 운조루),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동귀틀 사이의 1줄 내에서도 차이가 나는 마루널이 사용된 경우(추사고택, 충효당, 양진당)로 살펴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논의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주택 우물마루는 구성요소가 다듬어진 정도에 따라

11) 마루널의 평균비례는 주택별 존재하는 마루널의 가로길이별, 세로길이별로 합해서 이들 마루널의 개수로 나누어 평균 마루널의 값을 구하고 이 값의 가로:세로의 비례를 구하였다.

장귀틀, 동귀틀, 마루널 모두 잘 다듬어진 부재를 사용한 경우(연경당, 선교장)와 장귀틀은 잘 다듬어졌으나 동귀틀, 마루널에 잘 다듬어지지 않은 부재를 사용한 경우(충효당, 양진당), 장귀틀에는 휘어진 부재를 사용하고, 동귀틀과 마루널에는 잘 다듬어진 부재를 사용한 경우(운조루)로 나누어 볼 수 있었고 장귀틀, 동귀틀, 마루널 모두 잘 다듬어지지 않은 부재를 사용한 곳은 없었다. 이러한 부재의 사용이 공간이 미치는 이미지로는 장귀틀, 동귀틀, 중귀틀 모두 잘 다듬어진 부재를 사용한 경우 규칙적이면서 비교적 섬세한 이미지를 주었고 그 외 한 요소라도 잘 다듬어지지 않은 부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불규칙적이면서 비교적 거칠은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를 현대에 적용시 우물마루 구성요소들의 거친 정도를 어떻게 구성해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전체공간의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

둘째, 전통주택 우물마루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전체적인 비례에서 보면, 연경당, 선교장은 여성적인 이미지를, 운조루와 충효당은 남성적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장귀틀:동귀틀의 가로길이에 대한 비례, 장귀틀, 동귀틀의 절대적 치수인 굵기, 동귀틀간의 간격, 마루널의 다양한 비례와 형태로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현대에 적용시 우물마루 구성요소들의 비례를 어떻게 구성해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전체 공간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준다.

셋째, 장귀틀의 유무는 전형적인 우물마루를 표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즉, 장귀틀이 없으면 추사고택에서처럼 우물마루가 구성되어 있을 때 실내에 미치는 이미지가 부족하므로 이를 현대에 적용할 때에는 장귀틀, 동귀틀, 마루널이 모두 있게 디자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향후 진행되어야 할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면,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상류주택 사랑대청의 우물마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표집을 다양하게 하고, 우물마루 뿐 아니라 벽, 천장, 창문 등 다양한 실내구성요소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1. 김선우, 전통 주거 난방의 사적 고찰, 온돌을 중심으로, 건축90, 1979
2. 류근주, 김경표, 高設式 온돌집의 구성형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107, 1997
3. 박영순 외, 우리옛 집 이야기, 열화당, 1998
4. 박진근, 마루의 발달을 통해본 겹집의 평면형태에 관한 연구-매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5.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상·하, 열화당, 1993
6. 여명석, 전통온돌의 시대적 변천과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75, 1995
7. 염근호, 우리나라 전통 정주공간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0
8. 이도희, 조선조 창살문양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9. 이정국, 이강업, 고려시대 기거양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4, 1997
10. 장기인, 목조, 보성문화사, 1991
11. 정기범, 전통온돌의 구조와 열성능,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12.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일지사, 1991

13. 주남철, 온돌과 부뚜막의 고찰, 문화재 20, 1987
14. 주남철,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1987
15.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97
16. 천병옥, 이조시대 주택의 장식적 의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57
17. 최상현, 조선상류주택 내부공간과 인체치수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18. 홍형욱, 한국 주거사, 민음사, 1992

<접수 : 1999. 5. 6 >